

하고, S 더불어 심사 기간 단축 및 국제적 인용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학술지 발행기관의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출판 환경과 제반 기술이 지원되며, 오픈액세스(Open Access) 출판 환경 구축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가 가능하다.



<그림 설명> K'PubS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서 데스크톱, 태블릿 및 스마트폰 등에 자유자재로 서비스된다.

K'PubS는 한국생태학회 등 약 10종의 국내 우수 학술지를 탑재하여 서비스에 들어간 후, 점차 종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포함된 학술지들 중에는 학술지 국제화를 추진하는 학술지뿐만 아니라 이미 SCI(E)나 SCOPUS에 이미 등재된 학술지도 4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K'PubS를 통해 국제 서비스되는 학술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데, 연간 4회 이상 20편 이상의 논문을 정시 발간하여야 하며, 국제 수준의 심사 시스템 활용, 오픈 액세스 정책 채택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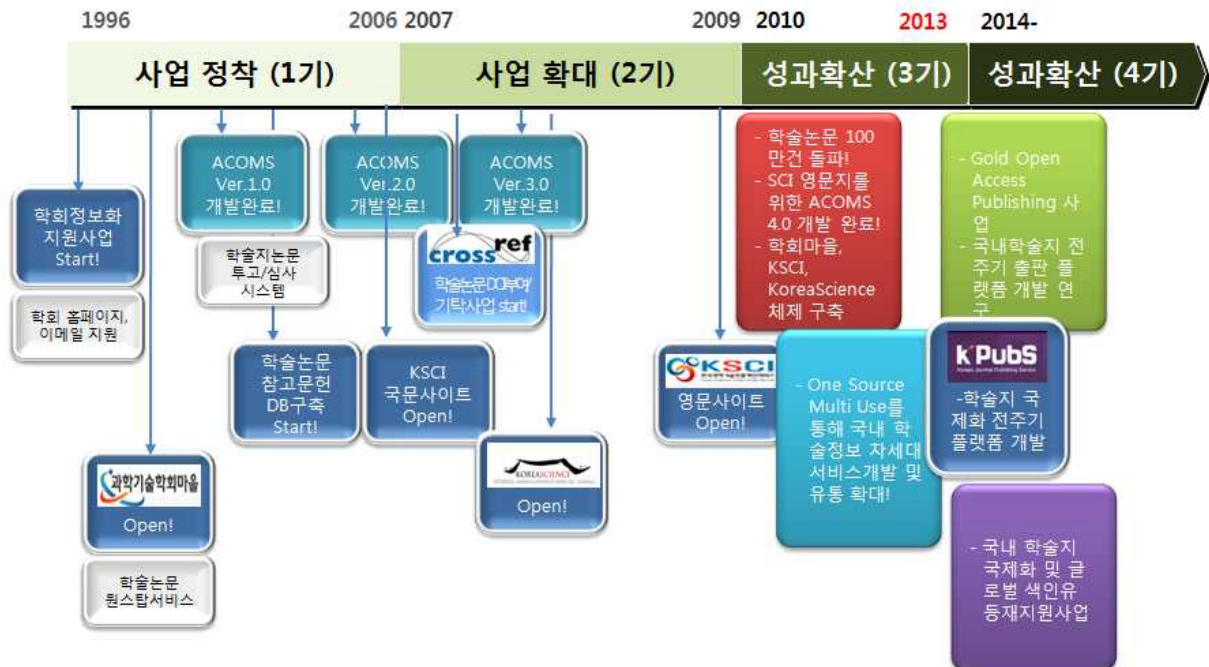
한편 KISTI는 국제적인 정보유통조직과의 협력망을 통해서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연계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 과학기술협력망인 WorldWideScience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Google Scholar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며, 아시아 과학기술 포털(Asia Science and Technology Portal)에도 연계하여 국내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최선희 KISTI 국내정보실장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학술지 편집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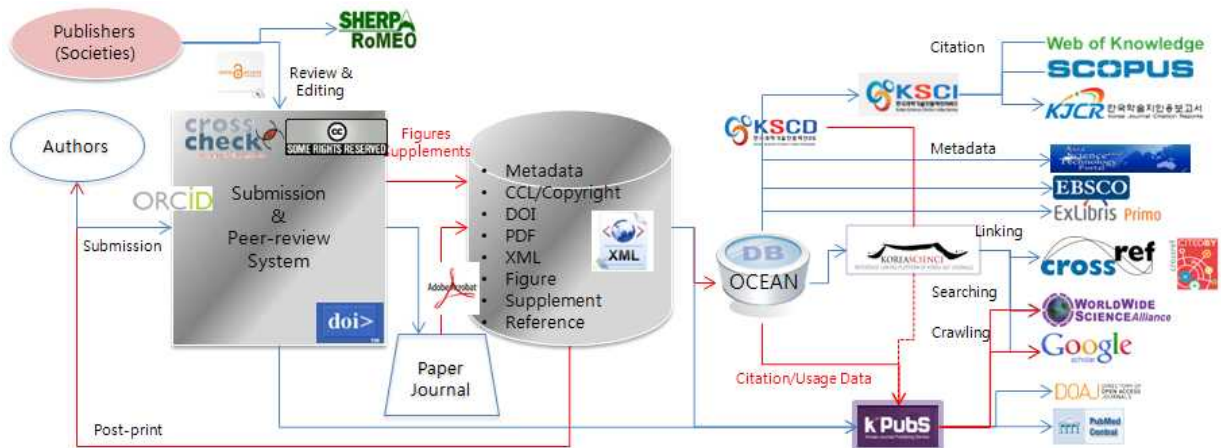
□ KISTI의 국내 학술지 지원 사업 연보

KISTI는 그 동안 국내 학술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미 150만 건이 넘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KISTI는 이에 더하여 국내 학술논문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350종 13만여 건 서비스), 국내 학술지의 국제 색인 등재에 필수적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ACOMS),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유통 서비스인 코리아사이언스(koreascience.or.kr), 국내 학술지의 인용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과학인용지수(KSCI) 등의 개발을 통해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한국형 학술지 국제화 모델 소개

한국형 학술지 국제화 모델은 창출 단계(Creation), 아카이빙 단계(Archiving), 웹 서비스 단계(Web Service), 확산 단계(Circulation)의 4단계로 구성된다.



<국제화를 위한 한국형 학술지 출판 모델>

먼저, 창출 단계에서는 논문이 국제 수준의 투고 지침에 따라 논문이 잘 편집되도록 하고, 전자 파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포맷에 따라 제작되도록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온라인 투고심사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모델에서는 하나의 온라인 투고심사 시스템을 정하지 않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아카이빙 단계는 논문 데이터의 표준적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는 학술지의 웹 서비스와 국제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DOI 관련 작업과 Full-text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구축 작업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웹 서비스 단계에서는 논문을 국제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 학술지가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DOI 랜딩 페이지와 오픈액세스 레포지토리 역할도 포함된다. 그밖에 검색 효율 향상을 위한 색인 작업, post-print 제공,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확산 단계의 목표는 국제색인 등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술지 검색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WorldWideScience, Google Scholar,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등과 같이 비용이나 평가 등의 제한이 없는 사이트로의 연계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의 색인 DB와 Web of Science와 SCOPUS에 등재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 및 인용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국내 학술지의 해외 종속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는 SCI나 SCOPUS와 같은 국제 색인 DB 등재를 통하여 논문 인용 횟수를 확대하고자 해외의 대형 출판사와 출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 상위 3개 대형 출판사인 엘제비어(Elsevier), 스프링어(Springer), 와일리-블랙웰(Wiley-Blackwell)이 국제 학술지의 1/4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형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출판 및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출판사가 학술지에 대한 독점적 판권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통 및 사용권까지 가지게 된다. 결국 국내 학회 학술지가 더 이상 국내 학술지가 아닌 대형 출판사 발간 학술지가 되어서 국내 R&D 학술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학술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